

# 전북산 가을무 최저가격 보장 받는다

### 3개 시군 31농가에 2700만원 지원 확정... 경영기반 취약 중소농 보호

전북도는 27일 '2017년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사업' (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기준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품목 중 가을무가 차액지원 대상품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생산비(농진청 발표)와 유통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표)가 지난 22일 최종 발표됨에 따라 품목별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가을무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합한 기준가격은 498.2원/kg이며, 주 출하기 평균 시장가격이 439.3원/kg으로 기준가격 대비 12% 하락해 kg당 차

액 58.9원의 90%인 53원/kg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시군은 군산, 임실, 순창 3개 시군이며, 지원금액은 31농가에 총 2700만원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가을무 참여농가의 출하이행률 조사 후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즉시 차액을 지원하게 된다.

가을무 가격이 하락한 주요원인으로는 올해 여름까지 가격이 좋아 재배농가가 면적을 늘려 전년 대비 재배면적 11% 증가와 가을철 생육조건이 양호하여 생산량 28%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가을무를 제외한 다른 6개 품목은 올해 초부터 이어진 농산물 가격 강세로 도매시장 거래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평균 50%이상 높게 형성됐다.

특히, 건고추의 경우에는 주 출하기 평균가격이 21,076원/kg으로 전년대비 112%, 기준가격 대비 47% 상승해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몸값을 과시했다.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지역적 특색과 폭넓은 농업인 수혜를 위해 시군별로 2개 품목을 추천받아 마늘, 양파, 생강 등 7개 품목으로 확대해 내년까지 유지한다.

또한, 대상품목의 주 출하기까지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도 관계자는 "삼락농정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도내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현장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관련사업을 보완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민 57% "송 지사 직무 잘하고 있다"

### 시도지사 직무 수행평가

전북도민들이 송하진 전북도지사(시진)가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한국갤럽은 '2017년 하반기 시도지사 직무 수행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송하진 지사의 직무 긍정률은 57%로 지난해 같은 기간(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송하진 지사가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며, 안희정 충남 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등과 함께 상위권에 해당된다.

앞서 송 지사는 상반기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57%의 직무 긍정률을 보인다.

이처럼 송 지사가 올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오는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무주세계태권도대회 성공 개최, 2018년 정부예산 역대 최대 확보 등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북 못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성 기자



27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2017 하반기 퇴임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하여 최빈식 전북도청노조위원장, 퇴·이임 공무원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 도 하반기 퇴임식 '선후배간 석별의 정'

### 총 31명 공무원 현직 마무리... 직위·직급 상관없이 모두 공로패 수여

전북도는 27일 도청 공연장에서 전 청원이 함께하는 2017년 하반기 퇴(이)임식을 열었다.

퇴(이)임식에는 퇴직자와 공로연수자 및 가족, 동료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 해왔던 공무원들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

련했다.

도는 퇴직공무원들 간의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직위 직급에 상관없이 퇴(이)임자 모두에게 훈장 포장 대신에 동일한 공로패를 수여했다.

퇴(이)임자들은 그동안 뒷바라지 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 및 후배들과 한자

리에 모여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담소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하 인사말을 통해 "많은 가족과 동료 선후배들이 모인 가운데 명예로운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진정한 인생의 황금기인 퇴임 후의 인생을 보람차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을 대표하여 양심묵전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장은 "그 동안 도민을 위한 공복으로 살았던 만큼 앞으로도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여생을 살아가겠다"며 "어느 때보다 긴 안목과 전문성을 가져야 할 때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업무에 늘 정진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후배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 총 31명(정년퇴직 8명,예퇴직 1,공로연수 22)이 공무원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최선

### 5급이상 간부공무원 270여명

### 도지사·외부강사 특별강의

송하진 도지사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간부공무원의 마음가짐 등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송 지사는 "간부공무원들이 소통 의지를 가지고 직원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이나 공식사회 조직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간부공

무원이 열린 마음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초청 강연을 벌였다.

이 날 외부 강연은 김종욱 능률협회 강사가 '스마트한 회의,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도는 2016년부터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5곳 스타일 실천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매주 가족의날 정시퇴근과 월 1회 정시출퇴근의 날 시행, 유연근무 활성화, 결재판 없애기 등 일·가정 양립과 불필요한 일 줄이기로 직장문화를 개선, 이번 교육도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진성 기자

## 전북개발공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순항

전북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이 차질 없이 순항하고 있다.

27일 개발공사에 따르면 전북도로부터 현금 90억원을 추가로 출자 받으면서 정수와 임실, 진안, 무주 등 4개 지역에서 추진중인 임대주택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번에 출자받은 90억원은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도의 출자계획에 따라 총 400억원 중 3차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90억원을 포함해 그동안 278억원을 출자했으며, 내년에 90억원, 2019년에 32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공사에서는 4개 지역에 375가구 규모의 농어촌 임대아파트를 건립중이며 정수와 임실은 내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이며, 진안과 무주는 각각 2019년 12월, 2020년 2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